

골프의 기본은 절제 - 백구백상으로 정치와 경제현장을 아우러 “자~됐다”고 포효한 그날의 외침을 다시 들려주시길

『문화』와 관련된 사진 아카이브는 지난 8호 ‘2017 겨울호’에 『미술』, 『조각』, 『건축』에 이어 이번 ‘2018 봄호’는 『스포츠』로 시작합니다. 스포츠 종목이 다양하게 있지만 운정과 관련된 스포츠는 역시 『골프』입니다.

중앙일보에 연재되었던 ‘소이부담’에 적힌 증언을 보면 골프와 첫 인연은 1961년 7월 하순이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혁명 분위기에 골프장에 나가는 것을 모두 꺼려했지만 그는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운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솔선해 골프장에 나갔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린이대공원으로 변모한 군자리 컨트리클럽에서 김정렬 전 총리와 장지량, 김 신 전 공군참모총장이 첫 동반자로 골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는 골프채를 잡아본 경험도 없이 바로 라운딩을 하시고 그 후에는 레슨을 정식으로 받지 않아 세간에 ‘JP식 8자 스윙’이라고 불리우는 검도식 타법으로 골프를 즐기셨습니다. 이후 김종필 총재님은 골프 애호가로 우리나라의 골프의 발전과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전통과 역사에 빛나는 우리나라 유일의 골프장 서울C.C(서울 광진구 군자동 소재, 현 어린이대공원)를 갈아엎어 보리밭을 만들자는 주장이 나왔을 때, 국가 사회가 선진화되고 국제화되기 위해서 골프장을 없애서는 안 된다고 강력한 주장으로 유지, 발전 시키셨습니다. 1972년 국무총리 재직 시 한양C.C(경기도 고양시 소재)를 흡수 합병해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최고 명문 골프장으로서 골프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시어, 오늘날 남녀 골퍼들이 세계무대에서 좋은 성적으로 국위를 크게 선양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셨습니다.

검도, 테니스, 승마 등 여러 스포츠를 다 섭렵하시었으나 그러나 건강관리를 위해 특히 골프를 즐기셨습니다. 건강관리를 넘어 국내외의 정치·경제계 인물들과 골프를 활용하여 여러 현안들을 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본 오이타현의 퍼시픽 블루C.C.에 걸려 있는 ‘白球百想’의



김진봉
(재)윤정재단 이사장

휘호에 담긴 뜻은 골프의 기본은 절제라는 의미라 말씀하십니다. 골프채를 잡고 흰 공과 마주치면 백가지 상념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2008년 뇌경색으로 쓰어져 휠체어에 의지하게 되었을 때, 모두 골프와 인연은 끝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장애인용 전동 카트에 의지하여 뉴코리아C.C.에서 드라이버를 다시 잡으셨습니다. 구십의 나이에 불편한 몸을 이끌고 필드의 선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비록 장애인 골퍼용 특수카트에 의지하였지만 골프를 사랑하는 진정한 그분의 모습을 보며 많은 이야기들을 기억하게 해주었습니다. 풀냄새를 맡고 싶었고 필드에서 땀은 사람이 그리웠다고 술회하시는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세월은 거둬하는 것만으로 늙지 않는다, 이상을 잃을 때 비로서 늙게 된다.’는 새뮤얼 울먼의 시 ‘청춘’을 읊조리는 그분의 모습에서 진정한 이 나라의 어른이자 지도자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됩니다. 이 어른이 이야기하는 이상이 무엇이고 그 이상을 위해 우리들은 얼마나 열심히 살고 노력하는지 새삼 되새겨보게 됩니다.

그분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골프를 칠 수 있는 것은 왼손과 왼 팔이 멀쩡한 때문이다. 골프는 두 팔로 하는 운동이지만 힘의 작용은 왼 팔에서 이뤄진다. 오른 팔은 왼팔에 따라 붙을 뿐이다.’ 왼손만으로 클럽을 쥐는 하프스윙 탓에 비록 비거리가 짧아 그린에 오르기까지 시간은 걸렸지만 그 날의 골프에서 윤정은 신체의 온전함을 증명하는 격렬한 의식 같았다고 술회하셨습니다. “자~됐다”고 포효하신 그날의 함성을 자연에 들려 주셨던 그날의 외침을 지금 오늘의 우리 모습을 되돌아보며 다시 듣고 싶습니다. 골프는 두 팔로 하는 운동이라는 새삼스러운 진리가 가슴 깊이 전해 올립니다. 陸走

2018년 3월 31일